

<쓰레기 몸살과 삶의 행복지수>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나는 언제서부터인가 여름의 더위를 떨치기 위한 야외나들이를 기피한채 집안에서 쉬는 것으로 더위를 달래고 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물놀이를 가면 물가에, 들놀이를 가면 들녘 구석구석에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인해 혐오감을 가지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얼마전 어떤 신문에서 설악산 등산로 곳곳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고발한 짧은 글을 읽은 것이 생각난다. 등산로 곳곳이 쓰레기와 오물로 뒤덮여 산 꼭대기까지 파리떼가 들끓고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발자의 제안은 청결한 설악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등산자들이 산행질서를 지켜야한다는 것이었다.

장마철이 되면 상류에서 빗물과 함께 휩쓸려온 온갖 쓰레기들이 팔당을 비롯한 여러 상수원보호구역의 호수 또는 강기슭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TV 화면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수질오염은 물론 쓰레기처리에 소용되는 인력과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되

도시 한복판은 어떤가? 구석진 곳만 있으면 쓰레기가 쌓이게 마련이고 길가 녹지대는 쓰레기와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눈에 익은 풍치이다. 고층빌딩 창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건물옥상에는 온갖 잡동사니 물건들이 너절하게 방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제도와 행정의 미비보다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공중도덕 의식의 결핍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 집안, 그것도 건물안만 깨끗하고 정돈되면 된다는 좁은 생각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 없다는 자기가 자기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에 가책이 없는데서 저절러지는 행동거지이다.

지난 5월 말 10일간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태리 등지의 농촌지역을 승용차로 하이웨이가 아닌 길로 여행하는 기회가 있었다. 농가에 머물면서 주변의 산등성 마루에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호수와 강가를 거닐어 보기도 하면서 농촌생활을 들여다 보는 기회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어느 집 또는 어느 곳을 가나 깨끗할 뿐만 아니라 잘 정돈되어 있었고 아름답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촌을 보면 농사일에 쫓기다 보면 정돈이나 미화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은 이해해 주고 있다.

집안에 먼지가 없는 반들거리는 창가의 안과 밖에 예외 없이 화초를 가꾸고 있는가하면 건물주변 정리를 한집이 아닌 모든 가정에서 한결같이 단정하게 하고 있어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의심할 정도였다. 지역사회의 불문율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면 아마도 국민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독일에는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환경도시로 알려진 다수의 도시들이 있어서 세계의 환경도시를 선망하고 있는 환경인들이 자주 찾는 나라이다. 환경의식이 싹트기 이전부터 이 나라 국민들의 청결성은 세계에 정평이 나있다. 오죽하면 청결함을 자랑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한 백화점이 홍보캐치프레이즈로 <보통 깨끗한 것이 아니라 독일식으로 깨끗하다-Hot just clean but German clean!>이라고 했겠는가?

오스트리아의 경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Sound of music>의 장면에서 익히 알려진 눈덮힌 바위산과 넓고 푸른 초장 그리고 창가에 꽃삼자가 달린 아름다운 농가가 어우러진 풍경만 가리고도 세계의 관광객의 발길을 끌기에 족한데 웅결성마저 갖추고 있으니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도 국내의 관광인들에게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만한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는것으로 안다. 이들 관광자원을 빛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하는 데에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 전원이 자기 주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습관이 뿌리내려야 한다.

하면된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했지만 전 임직원들이 쓰레기 집계를 들고 다니며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있어서 누구도 쓰레기를 버릴 염두를 못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는 벨라단지도 관리인들의 부지런함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삶의 행복감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따라준다면, 그리고 이러한 바람이 나라 전체에 분다면 유럽 어느 나라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글 자